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K-POP 전용 공연장 건립 본격 추진

문광부 "1만명 수용 시설 단 1곳 뿐... 고품격 인프라 필요"

국내에서도 대규모 K팝 공연을 할 수 있는 아래나형 공연장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29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을 3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화부는 "국내 대중음악콘서트 시장은 연평균 약 40%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에서 1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실내 공연시설은 올림피아드 체조경기장 단 1곳이던 여가동들이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실정에서 공연기획사들은 공연장 대관을 위해 대기하거나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는다"며 "국내

외 정상급 뮤지션들이 마음껏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펼치려면 고품격 대중문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정민 홍익대 교수가 사회를 맡는 이번 세미나에서 이런 공연장 건립 필요성을 둘러싼 이슈와 방향성을 점검한다. 백성운 국회의원은 전용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정창환 SM엔터테인먼트 이사는 아래나형 공연장 건립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정현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해외 아래나형 공연장 사례와 건립 운영 관련 이슈를 점검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화주 한국관광공사 전략사업센터장, 최경은 문화관광연구원



<카리>

권원, 신상화 CJ E&M 콘서트사업부장,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홍기원 숙명여대 교수가 참여한다.

시트콤 '선녀가 필요해' 첫회 시청률 8%

KBS 2TV가 4년 만에 선보인 시트콤 '선녀가 필요해'가 27일 시청률 8%로 출발했다.

28일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선녀가 필요해'는 전날 첫회에서 전국

8%, 수도권 8.9%의 시청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동시간대 방송 중인 MBC 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 불과

2%포인트가량 뒤진 성적이다. '하이킥'의 이날 시청률은 전국 10%, 수도권 11.

4%로 집계됐다.

'선녀가 필요해'는 '안녕 프란체스카' 등을 통해 코믹 연기에 재능을 과시한 심혜진이 중심을 잡고 '젠블맨' 차인표가 데뷔 18년 만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시트콤이라는 점에서 기획단계에서부터 관심을 끈 작품이다. '선녀와 나무꾼'을 모티브로 삼아 우연히 지상에 머물게 된 선녀 모녀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차세주와 얽히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다.

Table with 2 columns: Animal zodiac signs (子, 午, 未, 申, 酉, 戌, 亥) and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for the date 2월 29일 (음 2월 6일 庚申).

EBS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EBS Plus 1 and EBS Plus 2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How do you like Gwang-ju?' featuring Korean text, English translation, and a quiz.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뫼후로' (Moyu) featuring Korean text, English translation, and a quiz.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Chirashi' (ちらし) featuring Korean text, English translation, and a quiz.